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령강림

## 부활 후 제8주일 / 오순절

조과복음 / 요한 20, 19-23 (조과복음 9와 동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 265, B 334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77
- 오순절 입당송 / 265, 오순절 예식서 79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77
- 오순절 시기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0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 오순절 예식서 40
- 사도경 : 사도행전 2, 1-11 / 265, 봉독서 101
- 복음경 : 요한 7, 37-52, 8, 12 / 106, B 31
- 오순절 영성체송 / 266,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오순절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성령강림 대만과' / 오순절 예식서 88-93

##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이다”

성인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 기도를 추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면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성인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인께서는 ‘기도’라는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성인의 처방을 충실히 따랐고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란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 기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은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충고하셨을까요? 혹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맹종하는 자’가 되길 바라셔서 일까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낮과 밤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는 빛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으로 부터 나신 빛’이시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언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 그의 얼굴의 살갗이 빛났다. 시나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이야기 나눌 수가 없어 모세를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출애굽기 34,29-35)

또한 다불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변모하셨는데 주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했다. 이를 바라본 세 제자들은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고백한다.(마태오 17,2)

예언자와 사도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생명의 빛으로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다. 부활절 예배에서 “와서 지지 않는 빛을 받을지어다!”라는 성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빛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부활의 빛을 받아든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 주님의 빛은 마치 불길에 초가 녹듯이 악함이 그 빛 앞에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실이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빛을 밝혀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소경에게 눈을 만져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자 그가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는 이 소경이 치유받고 빛을 보듯이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빛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받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라고 찬양하는 성가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거룩하고 생명을 베푸는 빛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빛을 퇴색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길 두려워하여 어둠 속을 헤매며 빛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죄를 짓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빛을 잃듯이 우리도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하느님 나라이시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만이 주님의 빛을 받아 모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신다.

항상 주님께 기도합시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 성서는 나에게 어떤 것인가?

내가 지쳤을 때, 성서는 나를 쉬게 한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서는 나의 빛이다.  
내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성서는 나의 양식이 된다.  
악이 나를 공격할 때, 성서는 나의 강력한 무기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성서는 나의 신성한 약이다.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성서는 나의 벗이다.  
언제고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성서는 나를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내가 차고 냉랭할 때, 성서는 따스함이고 온기(溫氣)이다.  
내가 슬플 때, 성서는 나를 위로해 준다.  
내가 이 세상을 여행할 때, 성서는 나의 안내자가 된다.  
무엇보다도 성서는 내게 하느님의 말씀이다!!  
성서는...

진리...  
사랑...  
거룩함...  
빛...  
구원...

을 전해준다.

▶ 아타나시아



## 소 식

### 대교구

■ **신데즈모스 모임** ▷ 지난 5월 27일(토)과 28일(일)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서울, 인천, 부산과 울산의 신데즈모스 회원들이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27일(토) 오후 5시경 첫 만남과 각자 자기 소개 시간을 갖고, 울산 지역 성당의 신자들과 함께 대만과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대주교님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석후소과를 드리고 토요일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8일 주일에 모두 함께 주일 조과와 성찬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날 고 바울로 권언건 사제의 40일 추도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울산 지역 성당의 신자들이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대주교님과 '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의무'라는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모임을 위해 준비해주시고, 특히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울산 성당의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도움을 주신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운영위원회 부의원이신 마태오 이경섭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지난 5월 27일(토)

에 그리스인 니콜라오스 하조뿔로스와 엘레니 전나래 교우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성사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 **성당 카펫 청소** ▷ 지난 5월 29일(월)에 대성당 바닥의 카펫을 전문 카펫청소 대행 업자를 통해 대대적으로 세탁 청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고 바울로 권언건 사제 40일 추도식** ▷ 고 바울로 권언건 사제의 40일 추도식이 지난 5월 28일 주일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과 로만 사제 그리고 요한 보제의 집전으로 주일 성찬예배에 이어서 드려졌습니다.

가족인 하리스 사모와 디오니시오스, 논나를 비롯하여 울산 성당의 신자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서울, 인천, 부산에서 온 신데즈모스 회원들과 로만 사제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고 바울로 사제를 기억하고 추모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바울로 사제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주간 예식

· 6월 5일(월) ▷ 성령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